

中共經濟의 成長戰略

—韓國戰略과의 比較—

朴 熊 緒*

1. 韓·中共 經濟成長 比較와 문제점
2. 經濟成長 成果와 總量的 戰略
3. 產業政策과 戰略
4. 結論

1. 韓·中共 經濟成長 比較와 문제점

두 國家의 經濟成長 過程을 比較 分析하는 것은 比較 自體가 目的이 될 수는 없다. 대부분의 比較성장의 分析 뒤에는 어떠한 假設의 검증이 內在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中共과 인도의 經濟成長 過程을 比較할 때에는 최소한도 첫째 그 比較의 타당성, 둘째 共通性의 차출, 셋째 成果(performance)의 比較, 넷째 양국의 政策上的 상이점 등의 比較를 통한 成長戰略評價의 原因과 結果를 어떠한 形式으로나마 推出해내는 過程을 거치게 된다. 例로써 인도와 中공의 經濟成長 比較를 통하여 나타난 被檢證 假設은 兩國의 思想係의 차이가 초래한 經濟成長戰略의 차이가 무엇이며 그러한 經濟成長戰略의 차이는 어떠한 成果의 차이를 내고 있는가 하는 명제일 것이다. 이러한 比較검증은 왕왕 서로 對立된 思想體系 사이의 논쟁 가운데서 自身の 立場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온 경향이 있으므로 그러한 經濟成長의 比較分析의 結果는 學文的으로 별로 客觀性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나타난 結果에 대한 信認度도 일반적으로 低評價하는 현상이 있다.

따라서, 韓國과 中共과의 經濟成長戰略 및 成果의 比較는 韓國과 北韓 또는 인도와 中共과 같이 外形的으로 比較可能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思

*韓國產業經濟技術研究院 首席研究員

想體系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아니므로 단순한 思想的 差異를 經濟成長 比較의 차이로 연결하기는 대단히 힘들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韓·中共 經濟成長比較의 強占이기도 하지만 또한 同時에 弱점이기도 하다.

本考에서는 곧이어 中共和 韓國의 經濟的 차원에서 유사점들을 추출하여 比較하여 보고 잇달아 兩國의 經濟成長의 유형을 동태적으로 검토한 다음 곧바로 經濟成長戰略分析에 들어간다. 經濟成長戰略分析에 들어서는 첫째로, 총량면에서 投資와 저축 및 消費戰略을 검토한 후, 그 뒤에 產業政策과 戰略을 分析함으로써 戰略의 차이면에서 발생하는 經濟成長의 差異를 추출해 보는 努力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가장 두드러진 韓國과 中共사이의 유사성은 인구 문제에 있다. 世界人口의 $\frac{1}{4}$ 을 가지고 있는 中共과 우리가 인구 문제에서 유사성을 가진다고 하면 상당히 逆說的으로 들릴지 모르나 그것을 인구 밀도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中共은 1978年 現在 212名, 韓國은 약 380名으로서 (물론 우리가 中共에 비해 두 배의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으나) 中共의 인구 밀도 역시 대체적으로 높은 것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유사성이라고 보아도 옳다. 더구나 中共·韓國 共히, 산간 벽지를 제외한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말미암아 中國의 東部해안이나 韓國의 大都市 주변에서는 인구 밀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실제 可用產業 環境下에서의 인구는 양국이 거의 비슷한 性格을 띠고 있다고 보아도 옳다. 인구 증가율에 있어서도 兩國은 상당히 비슷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共의 인구 증가율은 2.9%부터 시작하여 1.3%까지 20年 가까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韓國에 있어서도 역시 같은 期間동안 약 2.9%부터 1.6%까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인구성장 면에서도 兩國은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政策의 성공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成果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60年代 初期 中共의 經濟 조정기에 있어서의 인구성장율은 2.9%, 우리나라 經濟發展 初期인 1962年の 2.9%와 同一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中共의 3차 五個年計劃期間인 66년부터 70年 사

〈表 1〉 人口密度 및 增加率 比較

	中 其	韓 國
人 口 密 度(1978)	212	380.3
人口增加率(年平均)		
1950~57	2.4(第 1 次 經濟計劃)	
1958~62	1.6(第 2 次 經濟計劃)	
1962		2.86
63		2.78
64	2.9 (經 濟 調 整 期)	2.61
65		2.55
66		2.51
67		2.34
68	2.4 (第 3 次 計 劃)	2.32
69		2.26
70		2.18
71		1.97
72		1.87
73	1.7 (第 4 次 計 劃)	1.77
74		1.71
75		1.68
76		1.64
77		1.61
78	1.3 (第 5 次 計 劃)	1.60
79		1.58
80		1.58

資料 : EPB, 주요경제지표(1981) p. 13.

朴熊緒外 3人, 『轉換期の 中共經濟』, (국제경제연구원)

이의 年平均 人口成長率 2.4%도 당시 우리나라 2차 五個年計劃期間과 대체로 중복되고 人口成長率도 2.34%에서 1.97%까지 급격히 下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사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中共의 제 4 次 計劃期間인 71 年부터 75 年 사이의 平均成長率 1.7%도 우리나라 3차 五個年計劃期間의

1.87%부터 1.64%로 下落한 것과 거의 大同小異하며 다만 끝으로 1976年 이후의 中共의 人口成長은 1.3%로 급격히 下落했으나 韓國은 최근까지 1.58%線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다르다. 이러한 최근의 兩國의 차이는 中共 데이터의 신빙도와 同期間中の 中共이 겪었던 급격한 政治, 自然, 社會的 격변을 빌어 說明이 可能한 점도 있지만 重要的 점은 대체적으로 中共이 우리와 비슷한 人口증가를 및 하락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다음 中共과 우리가 비슷한 것은 다같이 農耕經濟로서 經濟成長을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韓國의 農業이 우리의 총 國民生産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中共의 것보다 훨씬 떨어져 있기는 하나 최소한도 50年代 末 및 60年代 初에 있어서의 兩國經濟는 비슷한 農耕 經濟로서 出發하였다. 특히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과 中共은 똑같이 영세적인 農耕經濟를 영위해 왔고, 지금도 영위해 오고 있다. 韓國의 1人당 耕作 面積은 0.14 ha로 日本의 것의 반을 약간 넘으며 中共의 1인당 耕作 面積은 0.12 ha로 우리와 함께 世界 最低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中共이 비록 방대한 國土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첫째로 방대한

〈表 2〉 農業人口 1人當 耕作面積比較 1978年

		農業人口 1人當耕作面積(ha)
韓	國	0.14
中	共	0.12
日	本	0.25
네	델	0.78
이	집	0.15
인	도	0.16
방	글	0.15
인	도	0.42

資料: World Bank Report For China, Annex A (1981).

FAO, Production Yearbook, Vol. 33, 1979.

人口가 그 안에 있으며, 둘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國土가 산악 지대나 사막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농경이 可能한 면적은 동부와 남부 지역에 局限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영세적인 농경 經濟體制는 낮은 1인당 生産性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貧困속의 악순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영농 方法도 원시적이고 비과학적이며, 低所得으로 말미암은 낮은 저축으로 인해 再投資가 不可能하기 때문에 農業 부문에 있어서의 發展의 소지가 完全히 배제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낙후된 農業經濟로부터 어떠한 方法으로 脫出하느냐 하는 戰略으로써 韓·中共이 다같이 工業化戰略을 使用하였으나 그 方法에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後에 더 논술하기로 한다.

또 하나 中共과 우리가 유사했던 重要的 點은 兩國 共に 낮은 低所得 均衡에서 成長努力을 出發했다는 점이다. 1960年代 初에 있어서 우리의 1人當 國民所得은 100弗 미만이었으며 中共도 거의 비슷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낮은 國民所得은 國民 저축 能力의 限界를 보여 주고 또한 戰爭과 파괴로 인한 國民資本 축적 能力의 限界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 下에서 兩國은 貧困의 악순환에서 脫出하기 위한 成長努力을 傾注하였으나 오늘날 韓國의 1人當 國民所得은 1,600弗을 증가했고 中共의 것은 아직 400弗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最近 中共政府가 發表한 조치에 의할 것 같으면 個人當 所得이 300弗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도 한다.

즉 이렇게 높은 人口密度와 낮은 國民生産을 가지고 있던 韓國과 中共은 농경 經濟에 바탕을 둔 貧困의 악순환에서 脫出하기 위한 經濟成長 戰略上 여러가지 유사한 方法을 使用할 수가 있었다. 물론 具體的인 分析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이 露出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工業化를 해야 되겠다, 또는 勞動집약적인 產業에 집중적으로 投資해야 되겠다, 또한 빠른 속도로 經濟成長을 達成함으로써 國民 저축 能力을 向上하여 自體의 힘으로 經濟成長을 계속할 수 있는 이력을 키워야 하겠다 하는 기초적인

戰略 차원에서서는 거의 비슷한 結論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韓國과 中共 兩國에 있어서 주로 經濟的인 차원에서의 유사점을 찾아봄으로써 經濟成長戰略의 어떠한 共通點을 강요당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제는 成長戰略의 具體的인 分析을 위한 本論에 들어가 以前에 成長戰略의 차이를 내세운 몇 가지 점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中共과 韓國에 있어서 가장 큰 經濟背景上의 차이점은 思想體系에 있어서의 차이일 것이다. 中共은 中央集中的인 社會主義 計劃經濟體制를 유지함으로써 民間부분의 自發的인 投資努力에 依存한 經濟成長을 주축으로 하는 우리와는 그 유형을 전혀 달리하고 있는 것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러한 命題는 中共自體의 經濟管理方法에 있어서의 20년동안 누차 있었던 급격한 政治的 變動을 同時에 참고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1950年代 初期에 있어서 소련식 中央集中的인 經濟開發計劃體制는 지나친 정도의 의욕으로 社會主義 中央集權化를 급격히 추진하여 그 自體대로 問題와 矛盾을 노출하였으며, 이에 박차를 가한 大躍進運動 以後에는 自身의 經濟政策 실패를 인정하고 재조정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기에 있어서도 실제로 經濟管理方法에 있어서는 별다른 自由化 조치가 보이지 않고 다만 重工業에서 農業으로의 중점 및 優先順位의 移轉과 같은 그런 낮은 차원에서 戰略的인 再考慮만이 存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60年代 後半期에 들어서서 文化革命 격동기에는 經濟管理自體가 순수 思想的인 目標와는 달리 상당히 완화된 있었으나 이것은 공장의 自治的인 운영에 의한 生産性的인 向上을 目的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장管理와 其他經營管理에 있어서 철두철미 思想的 純粹性을 높이고, 左翼革命의 促進을 目的으로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잘 정돈된 中央集權體制보다도 더 산만한 經濟運營을 초래하고 말았으며, 經濟運營에 있어서의 合理的인 考慮는 아주 輕視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70年代 中盤 4인방 시절까지 오히려 더 격화되는 현상이 보였으며 다만 70年代 初期에 石油輸出의 出現과 몇 가지 무리한 經濟的인 變動에 의해서 中

中共의 産業化 政策의 促進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合理的인 經濟運營이라는 점에서는 별로 진전된 바가 없었다. 그러던 것이 最近 鄧小平以後의 中共의 現代化政策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合理的인 요인과 自由化 요인 및 資本主義的 색채를 띤 經濟政策 요인들이 계속해서 中共經濟管理方法에 도입되고 있는 事實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다. 즉 우리의 꾸준한 市場經濟的 經濟管理方式에 比하여 中共은 그 반대편에 서서 우리와의 經濟管理方法의 차이만을 조금씩 변동시켜 왔었다. 이러한 思想的인 偏向에 근거한 經濟管理는 곧 經濟發展戰略에 차이를 냄으로써 經濟成長結果에도 두드러진 效果를 미치고 있었다.

그 다음 中共經濟가 韓國과 특별히 다른 점은 中共은 방대한 國內市場을 갖고 있으며 同時에 엄청난 自然資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中共의 個人當 所得은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의 $\frac{1}{4}$ 에 불과하지만 人口는 우리의 24배가 넘는 형편이므로 中共의 國內市場 규모도 공정 환율의 편향성(bias)을 無視하고 계산하더라도 最小限度 여섯 배의 큰 國內市場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成長戰略 수립 당시 즉, 1950年代에 있어서의 韓國과 中共의 國民所得의 유사성을 감안할 것 같으면 中共의 國內市場 규모는 우리나라 國內市場 규모의 최소한 15~20 배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대한 國內市場의 存在는 共產主義體制에 있어서의 對西邦交易의 기피 현상과 더불어 中共으로 하여금 自給自足的인 經濟成長戰略을 택하게 하는 重大한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또 하나 中共이 韓國과 다른 이유는 물론 中共에는 여러가지 自然資源이 存在한다는 事實이다. 풍부한 自然資源의 부존은 그 나라의 生存을 위하여 必要한 資源의 수입이 韓國처럼 급히 요청되지 않기 때문에 外貨획득의 우선 순위가 상당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바로 中共의 經濟戰略에 있어서의 특징 중 하나이며 이 점은 추후에 더 부연 說明한다.

2. 經濟成長 成果와 總量的 戰略

一國의 經濟成長成果를 그 나라의 國民總生產의 變動을 봄으로써 단정하는 것은 흔히 하고 있는 일이다. 물론 經濟의 實質成長을 國民總生產의 變動이 가장 잘 反映한다고 보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혹자는 產業 부분의 成長을 따로 보자고 주장하는 이도 있고, 더 나아가서 電氣生產 및 소요량을 比較하자는 이도 있고 또는 產業間의 구조의 變動을 比較해 보자는 등 여러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그 어떤 하나도 그 나라의 經濟成長을 잘 評價하는 理想的인 지수를 提示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國民總生產은 가장 포괄적인 숫자로서 한 나라의 經濟力量의 變動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지금까지 널리 使用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그러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 國民總生產 개념에 있어서의 本質的인 논란점을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두 나라의 成長成果를 國民總生產으로 比較하는 때는 그 비교를 위한 共同 통화의 선택의 문제가 發生한다. 즉 中共의 經濟成長, 또는 國民總生產을 美弗로 바꾸고 韓國의 國民總生產도 마찬가지로 美弗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과연 美貨가 이런 共同의 척도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發生한다. 共同의 척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美國 화폐의 편향성이 없어야하는데 美國 화폐 自體의 편향성보다는 韓國 화폐의 對美貨 편향성 및 中共 화폐의 對美貨 편향성에서 發生하는 문제가 더 重要한 문제이다. 美國 화폐 自體에서 發生하는 편향성은 韓・中共 共に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중 어느 하나를 有利하거나 또는 不利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韓國의 對美換率과 中共의 對美換率은 과연 그 양국의 통화 가치를 올바르게 表現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짚어 볼 必要가 있다. 不幸하게도 後進國일수록 對美換率評價가 低評價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後進國일수록 생활필수품과 經

濟生活 영위를 위한 기초적인 資源의 對外依存이 크기 때문에 輸入과 輸出에 있어서 赤字의 불균형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韓國처럼 赤字요인을 많이 달고있는 나라의 통화는 比較的 싼 (한국통화 기준) 換率을 가지고 있으며 日本처럼 흑자요인이 큰 나라는 換率이 높게 評價되는 경향이 있다. 만일에 貿易에서 發生하는 均衡이나 不均衡이 國內의 經濟力에서 發生하는 均衡과 不均衡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여기에는 편향이 발생할 여지가 存在하지 않으나 國內經濟의 能力과는 상관이 없이 貿易의 규모에서 發生하는 不均衡 때문에 換率이 왕왕 결정되므로 이러한 편향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가장 좋은 예로서는 美國의 경우 國內經濟力으로 할 것 같으면 世界 어디에 놓아도 당할 國家가 없으나 貿易의 進進성으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逆調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美貨自體가 低評價되어 가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韓國의 換率과 中共의 換率을 比較해 보면 비록 中共이 韓國보다 後進國이기는 하나 오히려 換率에 있어서는 中共의 對外貿易이 꾸준히 均衡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韓國의 對外貿易이 꾸준히 逆調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自體內的 經濟力과 상관없이 오히려 韓國 通貨가 低評價되어 있고 中共의 通貨가 高評價되어 있을 가능성은 나분히 존재한다. 둘째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國民總生産의 經濟成長比較로서의 약점은 國民總生産 개념 自體가 後進國일수록 低評價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흔히 日常生活에서 發見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간단한 식료품이 先進國의 슈퍼마켓에 出現할 때에는 그 안에 여러 流通 구조와 가공 단계를 거쳐서 많은 부가가치가 축적되어 나타나므로 그 싯가가 대단히 비쌀 수밖에 없다. 그러나 後進國일수록 이러한 가공 과정과 비싼 유통 구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택가 주변의 市場 길 바닥에 전시되어 판매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價格이 先進國의 같은 물건의 가격보다 훨씬 싼 可能性이 있다. 이것은 物價의 차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附價價値를 창출하는 活動이 연쇄적으로 先進國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 後進國에서는 그 活動이

극히 制限되어 있다는 사실을 意味하므로 國民總生産에 있어서도 같은 외곡을 내게한다. 즉, 같은 양의 식량을 兩國國民이 消費하고 있을지라도 先進國 國民이 소비하는 식품의 부가가치 또는 國民總生産에의 기여는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서비스 부문에서 나타나는 노동력의 부가가치는 先進國에서는 대부분이 다 賃金으로 지불되므로 양성화된 상태에서 國民生産 계정에 반영이 되나 後進國일수록 화폐화되지 않은 實質賃金같은 形態로 서비스의 댓가가 지불되므로 왕왕 國民所得 계측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後進國의 값싼 머슴이나 식모의 경우가 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果落된 요인이 後進國일수록 더 크기 때문에 國民總生産이 구조적으로 低評價되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그 數值 自體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편향에 대한 存在를 認識하는 상태에서 國民總生産이라는 개념을 使用하여 양국의 經濟成長을 比較할 수밖에 없다.

이제 <표 3>과 <표 4>를 比較해 봄으로써 中共의 經濟成長成果를 韓國의 것과 比較해 보기로 하자. 우선 中共의 경우에 있어서 各 期間別 年平均實質 國民生産成長率을 볼 것 같으면 中共이 本土를 장악한 1949年 직후에는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經濟를 빠른 속도로 安定과 成長의 軌道 위에 올려놓기 위한 복구작업이 奏效하여 年平均 19.3%라는 거의 不可能에 가까운 經濟成長을 達成하였다. 허나 이것은 전쟁때문에 발생한 파괴에 근거한 것이므로 실제로 정상적인 상태下的 經濟成長과 比較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제 1차 經濟開發五個年計劃期間 즉, 53년부터 57年 사이에 中共이 8.9%라는 놀라운 經濟成長을 達成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얻은 자신에 근거하여 제 2차 五個年計劃期間에는 칠리마 운동을 통하여 대단히 빠른 속도로 中共을 先進工業國 수준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욕적인 經濟成長 노력은 급기야 計劃의 차질, 物資의 부족, 필요한 社會間接資本의 부족 및 經濟成長을 이끌고 나갈 產業 各 부문에 있어서의 필요 인원과 資本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큰 실패를 낳아

〈表 3〉 中共의 年平均成長率 및 投資比重(1949~79)

單位: %

	實質國民所得(NI)增加率	實質成長率		總投資의 對 GDP 構成比
		農業部門	製造業部門	
1949~52 戰後經濟再建期	19.3	14.1	34.8	
1953~57 第1次 5個年 計劃	8.9	4.5	18.0	21.4
1958~62 第2次 5個年 計劃	-3.1	-4.3	3.8	27.3
1963~65 經濟調整期	14.5	11.1	17.9	20.1
1966~70 第3次 5個年 計劃	8.4	3.9	11.7	22.1
1971~75 第4次 5個年 計劃	5.6	4.0	9.1	28.8
1976~79 第5次 5個年 計劃	6.2	5.4	9.3	29.9
平均(1953~79)	6.1	3.4	11.1	26.1

資料: State Statistical Bureau and People's Daily

〈表 4〉 韓國의 年平均 實質成長率 및 投資比重(1962~80)

單位: %

	實質GNP成長率	實質成長率		總投資의 對 GDP 構成比
		農業部門	製造業部門	
1962~66 第1次 計劃	7.8	5.6	14.3	16.3
1967~71 第2次 計劃	9.7	1.5	19.9	25.7
1972~76 第3次 計劃	10.1	6.1	18.0	26.6
1977~80 第4次 計劃	5.4	-5.0	10.3	31.2
平均(1962~80)	8.8	2.4	15.9	24.6

資料: EPB.

五年 平均 -3.1%라는 놀라운 結果를 초래하였다. 물론 이것은 工業 부문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成長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農業 부문에서의 실패를 주로 반영한 것이긴 하나 五年 平均 負의 成長을 기록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事實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러한 經濟의 危機에서부터 즉각적인 복구를 위하여 그 다음 3년동안 재정정책을 取한 결과 年平均 14.5%라는 높은 經濟成長을 達成하였다. 이것도 역시 前期間에 있어서 負의 成長에 근거한 것이므로 韓國과 같은 正常的인 상태 하에서의 經濟

成長과 比較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그 다음 꾸준히 60年代 초반부터 지금까지 經濟成長을 유지하여 全期間을 통하여 中共은 年平均 6.1%의 實質成長을 達成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成長成果를 工業과 農業으로 나누어 볼 것 같으면 우선 工業 부문에 있어서의 成長率이 農業분야의 成長率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工業 분야에서는 負의 成長이 없는 것으로 보아 全期間을 통하여 工業化政策이 中共成長의 絶인차 역할을 하였다는 명제는 不認할 수가 없겠다.

이러한 사실을 <表 4>의 韓國과 比較해 볼 때 韓國은 1962年 以後에 4차에 걸친 五個年計劃을 통하여 國民總生産의 實質成長率이 7.8, 9.7, 10.1 및 5.4%로 比較的 安定된 成長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全期間을 통하여 8.8%의 높은 成長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中共의 경우와 比較하여 年平均 3%나 높은 것으로 이러한 結果가 20年間 누적되는 가운데 오늘날과 같은 國民生産의 격차를 초래한 것이다. 특히 韓國에 있어서의 工業化政策을 대변하는 工業 부문에 있어서의 成長率을 보면 14%, 20%, 18%, 10%, 16%의 比較的 安定되고 높은 成長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中共의 경우와 比較하여 볼 때 특히 安定적인 것을 發見할 수가 있다.

農業에 있어서도 다만 農業에 있어서는 2차 五個年計劃期間동안 年平均 1.5%의 낮고 저조한 成長, 특히 4차 計劃期間中の 年平均 -5%의 負의 成長을 초래한 곡물의 대흉작이 있었으나 꾸준한 工業化政策의 結果로 GNP 成長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兩國의 高度成長政策의 기초가 되는 投資政策을 볼 것 같으면 中共과 韓國 共히 總國民生産의 $\frac{1}{5} \sim \frac{1}{3}$ 을 每年 投資에 할애하고 있었다. 특히 中共의 경우는 最低 20%부터 最高 30%까지 꾸준한 投資비중을 보이고 있는 反面에 韓國은 計劃初期 단계에는 國民總生産의 16.3%라는 比較的 낮은 投資 비중을 보이다가 그것이 4차 計劃期間까지 꾸준히 상승해오고 있으며 5차 五個年計劃期間에는 이보다 더 높은 숫자를 책정하고 있으므로 韓國에 있어서의 高度成長을 위한 投資의 비중은 安定的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中共도 또한 投資 비중에 증가 추세가 분명히 보이기는 하나 여러가지 政治的인 격변기를 통하여 投資비중이 떨어졌던 것이 우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成長成果에 있어서의 比較를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할 것 같으면 韓國과 中共 共히 高度成長政策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한 投資의 비중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 하나 兩國 共히 工業化政策을 추진함으로써 工業부분에서의 成長을 成長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하였고 특히 韓國에 있어서는 工業부분의 成長이 주도적인 역할을 安定的으로 해 나가고 있으나 中共의 경우는 그 점에 있어서 韓國보다는 比較的 不安定한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農業부분에 있어서는 兩國 共히 自然조건의 변동 때문에 때로는 負의 成長을 보이고 있으나 農業分野의 특징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平均成長을 達成하고 있으며 오히려 全期間을 통한 平均 農業成長率에 있어서는 中共이 韓國의 2.4%에 比하여 3.4% 즉, 1% point 차로 능가하고 있는 것은 재미있는 사실이라고 보겠다.

이러한 總量變動上的 차이를 내게한 投資戰略에는 단순히 工業化政策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 意味있는 重要的 戰略上的 차이가 나타난다. 이것은 <表 5>와 <表 6>에서 볼 수 있는데 일정 期間에 있어서 中共이 자체내의 生産으로 使用이 可能的한 財源을 어떻게 消費하였고, 投資·저축하였는가를 比較해 보면 重要的 名제를 發見하게 된다. 1977, 8, 9年 3年間을 통틀어서 中共은 자기 國民總生産의 67.7%, 63.6%, 66.4%를 消費에 充當하였고 나머지를 저축하였으나 그 저축한 숫자와 실제로 資本 축적을 위하여 동원된 投資와는 약간 차이가 나게 된다. 1977年度에 있어서 소비 66.7%를 공제한 저축은 32.3%이어야 하나 실제 發生한 投資는 國民總生産의 35.7%로서 國內의 可用자원을 증가한 量의 投資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8년에 있어서도 國內生産 이상 분을 投資와 消費로 使用하여 國民總生産의 101.5%, 또 79년에는 101.2%에 해당하는 자원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表 6>에서 비슷한 계산을 韓國을 대상으로 해 본 결과 1977년에

〈表 5〉 中共의 國民所得에 對한 支出(1977~79)

單位: 10億원 (自國通貨)

	1977		1978		1979	
	金額	構成比 (%)	金額	構成比 (%)	金額	構成比 (%)
處分된 國民所得	265.9	103.4	301.4	101.5	337.0	101.2
可用 國民所得	257.0	100.0	297.0	100.0	333.0	100.0
消費	174.1	67.7	189.0	63.6	221.1	66.4
投資		35.7		37.9		34.8
貯蓄	83.2	32.3	108.0	36.4	112.0	33.6

註) 可用國民所得은 可處分國民所得(Disposable National Income)에서
海外部門 및 통계상 불일치를 제거한 것임.

資料: State Statistical Bureau, PRC.

〈表 6〉 韓國의 總可用資源의 處分 (1977~79)

單位: 10億원

	1977		1978		1979	
	金額	構成比 (%)	金額	構成比 (%)	金額	構成比 (%)
總 可 用 資 源	17,388	102.2	24,011	104.8	31,637	108.8
消 費	12,743	74.9	16,873	73.6	21,344	73.4
投 資	4,645	27.3	7,138	31.2	10,293	35.4
(貯 蓄)		(25.1)		(26.4)		(26.6)
GNP	17,021	100.0	22,918	100.0	29,072	100.0

資料: EPB.

國民總生産의 102.2%, 78년에 104.8%, 79년에 108.8%의 資源을 處分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양국 공히 國民總生産보다 많은 資源을 投資와 消費에 充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러한 比較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는 中共이 自體內의 가치분 所得 이상을 使用한 그 폭은 극히 작은데 반하여 韓國은 그것이 클 뿐만아니라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은 資源動員의 戰略上 차이를 說明해 주는 것이다.

다시 양국의 消費유형을 볼 것 같으면 中共은 國民總生産의 67.7%를 넘지

않는 정도의 消費를 유지한 반면 韓國은 消費가 國民總生産의 73~75%까지의 消費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戰略上 韓國은 소비 억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中共은 극도의 消費 억제를 하고 있다고 보겠다. 따라서 中共의 저축력은 國民總生産에 비하여 35.7%, 37.9%, 34.8%에 달하는 반면 韓國의 國民 저축율은 25.1, 26.4, 26.6의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저축율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25%, 즉 總生産의 $\frac{1}{4}$ 을 저축하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와 比較해 보아도 결코 낮은 수준의 저축은 아닌 것이다. 다만, 中共이 他國에 比較하여 월등히 높은 저축을 한 것은 國民의 소비활동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表現해주고 있을 뿐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戰略은 中共으로 하여금 자급자족적인 方法으로 높은 投資를 추진하여 經濟成長을 꾸준히 達成하였으나 그 結果는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韓國의 經濟成長結果보다 훨씬 뒤지는 것으로 오늘날 國民個人當 所得은 우리의 $\frac{1}{4}$ 로 轉落하고 만 것이다. 즉, 韓國은 國民의 消費조장을 통하여 國內市場을 확보하고 또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經濟成長의 전인차를 對外輸出과 國內에서 同時에 發見하고 있었던 반면에 中共은 國民의 소비를 극도로 억제하고 저축을 장려한 나머지 國內市場의 팽창을 허용치 않았으므로 國內市場으로 하여금 成長의 전인차 역할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對外指向的인 즉 輸出 주도적인 經濟成長을 취하였으면 저축 장려 정책과 일종의 보완 관계에 들어갈 수 있으나 中共은 이 점에서도 後述하는 바와 같이 자급자족적 즉 內向的인 戰略을 使用하였으므로 輸出市場을 전인차 역할을 시키지 못했고 내수시장 마저도 극도의 소비억제로 말미암아 팽창을 허용치 않았으므로 경제성장이 한국보다 훨씬 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이러한 성급한 韓國의 經濟成長戰略, 즉 輸出도 하고 投資도 하고 國內消費도 팽창시키고 하는 비교적 방만한 經濟成長戰略은 높은 成長은 達成하는 했으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높은 인플레이를 그 對價로 가져왔으며, 中共에 있어서는 최근까지도 거의 인플

레가 없는 상태의 經濟를 유지해 왔었다.

3. 産業 政策과 戰略

一般的으로 産業政策이라 하면 첫째는 農業, 工業, 서비스業 等 넓은 의미의 産業間의 均衡的 發展을 도모하기 爲한 所謂 産業 構造政策을 일컫거나, 둘째는 그것보다 더 자세히 工業部門 안에서 各部門(Sector)別로 어느 分野를 더 重點의으로 育成하며 어떤 分野를 斜陽産業으로 處理할 것인가 하는 工業內의 構造 調整 政策을 意味하기도 한다. 本章에서는 中共의 넓은 의미에서의 産業政策을 다룸으로써 農業, 工業, 서비스業間의 均衡이 어떠한 형태로 變遷하여 왔으며, 그것은 經濟成長에 어떤 役割을 하였는지를 규명해 보기로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中共의 産業構造政策은 韓國의 것과 마찬가지로 工業化政策이라고 要約할 수 있다. 工業化 政策의 뜻은 農·工·서비스 3個 部門中 特히 工業部門에 投資를 集中시킴으로, 그 成長을 積極的으로 推進하여 國民總生産의 70%를 占하는 農業部門의 比重을 줄이고, 10%의 比重도 안되는 工業의 相對的 比重을 높임으로써 先進型 産業構造를 이룩하고자

〈表 7〉 産業別固定投資의 構成

單位 : %

	1965		1977~79	
	韓 國	中 共	韓 國	中 共
農 業	11.5	20	8.5	21
製 造 業	27.7	54	23.0	57
重化學工業		(45)		(47)
輕 工 業		(10)		(10)
서비스業	60.8	25	68.5	23
計	100.0	100	100.0	100

資料 : World Bank Report 'For China, Annex A (1981). EPB.

하는 것이 그 目的이다. <表 7>을 볼 것 같으면 1965년에 있어서 韓國은 農業部門에 11.5%를 中共은 20%를 投資하였고, 77년부터 79年 사이에는 韓國은 農業部門에 8.5%, 中共은 21%의 固定投資를 집행해 왔다. 이에 比較하여 工業部門에서의 投資에서는 韓國은 1965년의 27.7%에서 1977年 이후에는 全投資의 23%로 그 比重이 줄었고, 中共에서는 全體 投資中 工業에 들어간 부분이 65년의 54%에서 77年 이후에는 57%로 약간 증가하였다. 서비스 부문에 들어간 固定投資에서는 韓國이 65년의 60%와 77年 이후의 68.5%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中共에서는 65년에 不過 25%만이 이 부문에 投入되었고 77年 이후에는 23%로 하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이러한 數値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기 以前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서비스 부문의 개념에 있어서 中共과 韓國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은 오해를 자아내기가 아주 쉬운 숫자들을 보이는데 이것은 한국의 서비스 부문의 뜻이 中共의 서비스 부문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건축, 교통, 통신, 전기, 上下水道와 같은 각종 公益事業을 서비스 부문에 포함하고 있는 反面, 中共에서는 이러한 分野를 대부분 工業部門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하여 광공업의 비중이 특히 높고 서비스 부문의 比重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숫자의 차이에 根據해서 우리가 中共이 우리보다 工業化에 더 注力을 했다가 우리보다 中共보다 서비스업에 더 注力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不可能하다.

다시 本論으로 돌아가서 <表 7>에서 重要的 點은 韓國과 中共에서 共に 農業分野에는 投資의 比重이 작고 鑛工業이나 交通, 通信, 建設 等 서비스부문의 投資 比重이 높다는 事實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工業化政策은 양국이 共に 國家的인 의지로 추진해 나간 것으로서 가장 빠른 속도로 先進工業을 國內에 移轉하여 自身이 必要的 物資 및 輸出用物資를 國內에서 生産하기 爲한 모든 努力을 경주한 흔적이 잘 나타나 있다.

中共에 있어서 農業部門에의 投資가 韓國에 있어서 農業部門에의 投資보다 훨씬 비중이 높은 것도 하나의 개념상의 차이에서 發生하는 문제로서 中共의 農業分野에의 投資는 人民公社內에서 發生하는 一體의 投資를 거기에 포함했기 때문에 숫자가 높아졌으나 人民公社 自體는 農業만을 주 업무로 하지 않고 農業에서 發生한 잉여소득을 農村工業 및 地方工業에 投資하는데 使用했기 때문에 20% 또는 21%가 全部 농업에 投資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다른 여러가지 증거에 依하면 韓國에서의 農業 投資가 中共보다 直間接으로 더 높았을 것이라는 點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 점은 추후에 다시 再論하기로 한다.

이렇게 工業部門에서 集中的 投資를 通하여 兩國 共히 工業의 比重이 10% 以下の 낮은 農耕經濟에서 1979년에는 中共은 47%, 韓國은 30.4%의 높은 비중으로 증가시켰다. <表 8>도 역시 <表 7>과 마찬가지로 工業부문과 서비스부문의 개념의 차이 때문에 誤解가 가능한 숫자가 있는 것에 注意를 요한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工業部門의 비중을 높이고 농업부문의 비중을 낮추는 작업은 一見 當然한 것으로 받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注意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韓國과 中共과

<表 8> 産業構造의 韓・中共比較(1979)

單位: %

	中 共		韓 國
	a*	b**	
農 業	31	34	21.2
礦 工 業	47	40	30.4
서 비 스	22	26	48.4
G D P	100	100	100.0

註) *a: 國民所得 集計上 차이를 調整한 것임.

**b: 國民所得 集計上 차이 및 相對價格의 차이를 調整한 것임.

資料: World Bank Report For China: Socialist Economic Development (1981.6).
EPB.

같은 영세농 중심의 農耕經濟에서는 農業部門의 國民총생산의 占有比重이 發展初期에는 75%를 오르내리고 있었으므로 農業과 工業의 均衡의 發展을 주장하는 이들은 農業부문의 우선적 생산성 향상이 없이 얼마 되지도 않는 工業部門의 成長을 全經濟의 成長을 爲한 견인차 役割을 시키는 것은 無理라고 주장한다. 工業部門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成長하더라도 그 比重이 너무 낮기 때문에 全體經濟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저조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GNP의 75%를 차지하는 農業部門의 成長을 우선적으로 促進하는 것이 全經濟를 빠른 속도로 浮上시키고 또 여기서 發生하는 잉여 農業所得이 內需市場을 증가시켜 國內工業 向上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므로 이러한 先農·後工主義가 經濟成長의 지름길이라고 보는 것이다.

勿論 이러한 論理는 몇 가지 非現實的인 과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첫째는 그렇게 巨大한 農業부문을 빠른 속도로 성장케도에 올려 놓음으로써 거기서 國民경제 全體의 견인차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함에 이렇게 巨大한 投資資源을 후진국이 동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극히 不合理한 假定이다. 둘째, 이러한 논리의 취약점은 農業部門의 技術과 生産性 向上을 마치 工業부문의 생산성 증가와 마찬가지로 無制限에 가깝게 發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거 20年 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各種營農의 科學化, 種子의 개량을 통하여 土地 單位面積當 쌀 生産量을 日本과 함께 世界最高로 올려 놓은 例로 보아도 年平均 農業 分野의 實質 成長 3.5%를 持續的으로 유지하는 것이 不可能하다는 點이 밝혀졌다. 따라서 農業部門에의 集中的 投資로 높은 經濟成長을 達成하려는 戰略은 無理가 있다. 셋째로,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農業부문의 科學的 營農, 種子의 改良, 各種 化學약품과 비료의 사용, 機械化 및 관계 사업 등 農業부문의 投資소요는 같은 부가가치 창출을 爲해서 필요한 工業부문의 투자소요보다 더 높다는 事實이다. 즉 농업의 發展이 工業의 發展보다 더 資本 集約的이며 農業에서의 資本의 限界生産性이 工

業에서 보다 더 낮다. 이러한 點들을 綜合하여 볼 때 中共과 韓國이 工業化 戰略을 擇한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急速한 工業化 政策의 結果는 國民總生産上의 比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雇傭의 變遷에서도 나타나는데 兩國의 產業別 고용성장 變動을 보면 <表 9>와 같다. 農業部門에서의 고용의 成長은 中共에서

<表 9> 韓·中共의 產業別 雇傭의 增加 및 構成 單位: %

	中 共			韓 國		
	年平均增加率		構成比(79)	年平均增加率		構成比(79)
	1952~79	1957~79		1962~79	1971~79	
農 業	2.0	2.0	74	0.1	0.1	35.8
鑛 工 業	5.5	6.3	13	10.4	10.8	23.7
서비스	3.4	2.5	13	6.1	5.0	40.5
總 雇 傭	2.5	2.5	100	3.7	3.9	100.0

資料: World Bank Report For China Annex A (1981).
EPB.

는 年平均 2%에 達했으나 韓國에서는 0.1%의 극히 저조한 현상이었으므로 고용의 성장이 韓國에서는 농촌보다 주로 都市에서 일어난 것이다. 반면에 中共에서는 꾸준히 잉여 노동력을 농업에서 흡수하려는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인다. 그 결과 中共 全人口의 74%는 아직도 農村에 居住하고 農業에 직간접으로 종사하고 있는 反面, 韓國에서는 이미 農業勞動力이 全 노동력의 36%로 줄었고 農村 居住人口의 기준으로 보면 전인구의 28%도 미치지 못하므로 농업부문에서 공업부문으로의 노동력 移動이 大量으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反面 工業에 있어서의 雇傭의 成長을 보면 中共에서는 60年代에 5.5%, 70年代에 6.3%씩 공업취업 인구가 증가를 보여 1979년에는 공업 노동력의 비중이 13%에 달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60年初 以後 工業부문에서의 고용증가가 10.4%, 70年代에는 10.8%로, 79년에는 공업 노동이 전

체에서의 비중이 24%로 늘어났다. 이러한 現象은 앞에서 설명한대로 工業化 政策이 韓國에서는 잉여노동력 흡수에 극도로 성공적이었던 反面에 中共에서는 공업화 정책이 노동력 흡수에 충분한 기여를 못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는 후에 中共이 집중 育成한 工業이 非勞動集約的인 重化學工業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란 점을 재론하기로 한다.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概念上的 문제가 있기는 하나, 이 부문이 고용창출과 노동력 흡수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은 單純히 개념만의 차이가 아니고 經濟運營上的 중점의 차이에 근거한 것 같다. 즉, 가장 勞動集約的일 수 있는 서비스 부문 가운데서도 특히 公益事業과 社會간접자본을 除外한 순 서비스 부문에 대하여 共產主義 政權은 정책적으로 육성을 등한시함으로써 이 부문에서의 노동력 흡수가 아주 저조했다.

이렇게 工業이 急速度로 成長하고 農業이 相對的으로 落後하는 成長패턴의 뒤에는 정부의 集中的 育成 政策의 효과가 큰 것은 自明하나, 그런 育成策은 단순히 投資의 不均衡의 配分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不均衡의 產業構造 政策에 있어서는 政府의 間接的 支援의 選別的 적용이 중요한데 中共에 있어서는 農村의 企業과 土地의 所有主體인 人民公社가 모두 政府가 아닌 國民의 共同所有로 되어 있기 때문에 大部分 政府의 所有로 되어 있는 工業部門의 모든 會社와 工場들과 비하여 볼 때 각종 支援은 물론 특히 製品의 價格政策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고, 이것이 또한 궁극적으로 兩部門 成長의 차이를 내는데 결정적인 役割을 한 것으로 보인다. 政府가 農業所得과 工業所得에 매기는 稅金을 農業에 不利하고 工業에 有利하게 하기 위해서 稅率自體에 차등을 주어 農業에 重課稅하고 工業에 輕課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自然히 農業에서 再投資가 줄어들고 政府에 集中된 投資財源을 政府가 원하는 분야, 즉 工業部門에 투자할 수 있다.

中共 政府는 이러한 方法을 쓴 것은 事實이나, 그보다 더 強力했던 工業化 產業政策은 選別的 價格政策을 취한 것이다. 中共 農·工부문에 있어서의 價格政策의 특징은 工業生産 製品의 價格을 높게 책정하여 거기서

發生하는 企業利潤을 全額 政府에 上納케 하여 工業再投資 財源을 確保한 것이다. 農業 生産品 價格은 극히 낮게 책정하여 工業製品을 高價로 구입한 후의 잉여를 줄임으로써 농업에서의 직접 재투자 기회를 극도로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農業에 있어서의 生産性提高도 극히 완만하고 노동력 흡수도 不可能하게 되었다.

政府의 이러한 特異한 價格政策은 資本主義 體制에서 말하는 所謂 Parity 價格을 공공연히 파괴하는 일로서 市場 經濟體制에서는 農產品의 所得 및 價格 彈性値가 낮고, 工產品의 所得 및 價格 彈性値가 높아서 長期的으로 別途의 조치가 없는 한 農民의 工產品 購入價格은 農產品 販賣價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上昇하여 Disparity 현상을 남게 한다. 中共 政府은 이러한 自然 現象을 오히려 더 深化시킴으로써 工業投資財源을 確保한 것이다. 反面에 韓國에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Disparity 價格구조의 발생과 거기서 파생하는 農業의 相對的 停滯를 막기 爲하여 政府가 二重 穀價制度를 使用하였다. 이에 따라 農民의 穀物販賣價格을 政府의 都市 放出價格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한편으로는 農民 所得을 꾸준히 確保시키고 工產品 購入價格의 相對的 上昇 압박을 구제해 주도록 노력하였다. 따라서 農村에서 投資는 農村에 蓄積된 財源으로도 활발히 일어나고 營農의 改善 및 生産性的 向上도 꾸준히 일어나 現在 韓國에 있어서의 農村과 都市사이의 不均衡은 많이 완화되었다. 즉 韓國은 投資 및 지원이 價格政策을 통하여 農·工 병진 정책을 使用하였던 반면에 中共은 工業의 急速의인 發展을 위하여 價格政策 및 기타 投資政策을 통하여 農業을 相對的으로 후퇴시키고 工業만을 중점적으로 育成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農業을 소홀히 하고 工業을 중점적으로 育成한 것만해도 問題가 있는데 中共과 韓國의 產業政策戰略에 있어서 또 하나 重大한 차이는 양국이 重工業과 輕工業에 둔 비중의 차이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表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共은 中共이 中國本土를 장악하기 前에는 輕工業 위주의 工業構造를 가지고 있었으나 1950年代 以後 꾸준히 重工業 위주의

投資量 促進해 온 結果 1973년에는 重工業 비중이 70%, 輕工業 비중이 30 %로 重工業 위주의 不均衡을 초래하였다. 그것이 어느 정도 完화를 보여서 輕工業 부문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것은 소위 등

〈表 10〉 韓·中共의 工業의 構造推移

單位: %

中 共			韓 國		
年 度	重 工 業	輕 工 業	年 度	重 工 業	輕 工 業
1936	28	72	1962	26.8	73.2
1957	48.4	51.6	1973	39.9	60.1
1958	57.3	42.7	1978	51.4	48.6
1959	58.7	41.3	1979	53.4	46.6
1960	60.5	39.5	1980	55.6	44.4
1973	70	30			
1978	57.3	42.7			
1979	43.1	56.9			
1980	46.7	53.3			

資料: 朴熊緒, 『中共의 對外開放推移와 우리의 對應』, (1981).
EPB.

소평의 現代化政策 以後에 행해진 일로서 傳統的으로 中國共產主義政權은 꾸준히 重工業에 重點적으로 投資하였던 것은 不認할 수가 없다. 이와 반면에 韓國은 發展初期부터 70% 以上을 점유하는 輕工業을 꾸준히 살려나와 1970年 初期까지만 해도 主로 輕工業 中心의 輸出產業構造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것이 70年代 後半期에 들어와서 한층 重工業 쪽의 비중이 늘어남으로써 發展後半期에 들어와서는 重工業의 확충에 努力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中共과 극도의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서 中共은 우선 重工業 育成, 그 뒤에 輕工業을 育成하는 方案을 택하였으나 韓國은 輕工業 우선 育成 뒤에 重工業을 育成하는 戰略을 사용하였다.

重工業과 輕工業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사람마다 여러가지 개념상의

〈表 11〉 韓·中共의 主要工業生産品의 構成比較

單位：%

部 門	中 共 (1979)	韓 國 (1977)
煙草 및 飲 食 料 品	11.4	15.1
纖 維	13.0	13.4
衣 類 및 신 발 類	3.0	6.8
나 무 및 종 이 製 品	2.5	4.4
고 무·플 라 스틱 製 品	12.3	12.0
석 유 및 석 탄 정 제 品	3.6	9.4
非金屬 鑛物 및 건 축 자 재	3.4	4.1
金 屬 鑛 物	9.0	7.7
機 械 및 金 屬 製 品	27.3	20.0
雜 製 品	6.0	3.9
석 유 및 석 탄 채 취 업	4.6	0.9
電 氣	3.9	2.3
合 計	100.0	100.0
重 化 學 分 野*	64.1	56.4

(註) * 總計중에서 연초 및 음식료품, 섬유, 의류 및 신발류, 나무 및 종이 제품, 잡제품만을 제외한 것임.

資料: World Bank Report Annex D Table 1.

차이가 있으므로 그 수치를 혼동을 가져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韓國의 경우에는 인쇄업, 유리공업과 같은 비교적 輕工業과 重工業의 中間에 위치한 공업도 重工業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最近에 韓國의 重工業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表 10〉의 숫자가 보여준 것만큼 크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4. 結 論

우리는 위에서 韓國과 中共의 經濟 및 非經濟 요인 가운데 유사점과 상이점을 比較해 본 後 그것으로부터 연유되는 自國의 立場에서 가장 合理的이라고 판단된 經濟成長戰略에 대한 比較를 시도하였다. 그 중에서 우리

는 우선 總量면에서 成長成果의 차이를 보고 그 成果의 두드러진 차이를 내기한 投資戰略 및 저축 동원 方法에 있어서의 차이를 검토하여 보았다. 그 結果 우리는 中共이 韓國에 比하여 消費를 억제하고 自體內의 저축을 동원함으로써 對外依存度를 극도로 줄이고 國民貯蓄의 힘으로 蓄積된 資本蓄積能力으로서 高度의 成長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戰略은 不幸하게도 成長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할 國內市場의 팽창을 消費 억제의 方法으로 극도로 억제함으로써 成長이 둔화되어 급기야는 全體成長의 둔화까지 招來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國內消費를 促進함으로써 內外市場을 同時에 成長시킨 韓國의 經濟成長戰略과 대조를 이룬다고 보겠다. 또한 產業戰略政策의 측면에서 볼 때 韓國과 中共이 共히 急速度의 工業化政策을 使用하였으나 韓國은 比較의 農·工 병진 政策을 使用한 반면에 中共은 극도의 工業 일변도의 育成政策을 取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80%의 人口를 가지고 있는 國內農村市場의 활성화를 達成하지 못하고 소위 自給自足的 經濟成長戰略의 기초적인 실패를 가져오고야 말았다. 또 한가지 產業政策에 있어서 두드러진 차이는 韓國은 輕工業을 우선 育成하고 그 後에 서서히 重工業으로 이전해가는 戰略을 取하였으나, 中共은 重工業을 우선 育成한 뒤에 輕工業으로 이전해가는 戰略을 取함으로써 結果적으로 고용의 效果를 보지 못하고 고용 창출이 낮았으며 國內所得의 창출도 떨어졌고 國內市場의 증가도 떨어져서 소위 自給自足的, 內生的 經濟成長戰略에 차질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中共의 經濟成長戰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貿易戰略과 技術開發戰略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명제가 충분히 理解되어야 한다. 그러나 本考에서는 지면관계로 다루지 않고 貿易戰略에 관해서는 筆者의 拙稿 「韓·中共 經濟成長戰略 比較研究」, 1981年 11月 韓國國際關係 國際政治學會 Symposium 발표 論文 英文版을 참조하기 바란다.

Synopsi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of China

—A Comparative Study with South Korea—

Ungsuh K. Park

In this paper we have investigated both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various economic and non-economic aspects of China and Korea. In every instance, within certain constraints, we find that both countries seem to have adopted policies dictated by environment. Their policy selection displays a great deal of similarity but despite the application of comparable industrialization policies over a similar period, dramatic differences in development performance are observed. To illuminate the causes for this dissimilitude, we have looked into the resource mobilization policy for investment and capital formation in both countries. The main thrust of China's policy in this regard was self-sufficiency; domestic consumption was significantly discouraged, and therefore, China proved able to finance most of her investment requirements with domestic savings. However, this selection of policy proved rather unfortunate for China, because in order to remain autonomous and minimize foreign dependence, she concentrated on the domestic market for her economic development. But with the severe restrictive policy on consumption, the domestic market had very little chance to grow and to help lead the industrial expansion.

Both China and Korea placed heavy emphasis on rapid industrialization. Contrary, however, to Korea's intertemporal approach to a balance between agriculture and industry, China tended to deliberately promote the industrial sector at the expense of the agricultural. In this way she managed to deprive the largest segment of her domestic

economy, the agricultural sector containing nearly 80% of the population, of a chance to improve itself and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process. This proved to be another crucial error in Chinese policy selection because the stagnant agricultural sector remained a bottleneck for the development of the entire economy.

Despite some of the prominent similarities in the economies of two countries, the differences seem to have dictated a significant gap in the policy selections of the two countries. It transpires, however, clearly that some of the policy selections made by China is less rational and conducive to maximizing economic growth than the case of Korea. Once the economic policy was launched on less than most rational path, the continuous and misdirected policies seem to have culminated to produce the comparatively low economic growth performance of China.